

<지난주 말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면 우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4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가도 가치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난 지난 일주일간 뭘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을 걸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알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급변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구나. 사울의 인생에 답이 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영적 다메섹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옷을 입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갑옷은 나의 영적 다메섹이 없이는 입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답이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갑옷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불가능의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은 날마다 화살이 날아옵니다. 내 동기와 내 목적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이 화살을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확신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시대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혼미하면 안된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절대여정, 절대이점표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루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와 안 맞는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된다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기억하시고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주일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되고 구원사역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야만 내 염려를 다 주인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인께 맡기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적이 날마다 화살을 쏘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께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본론>

1.영적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 지도자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벧전 5:1)

이때 당시의 장로들은 목회자이자 영적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의 고난에 동참했던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 장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고작 여덟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 되는 시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이 과연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벧전5:2)

사역을 억지로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답을 내셔야 합니다.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5:3)

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전도자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망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입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벧전5:4)

영광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삶의 목적을 두겠습니까?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자식 잘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게 행복입니까? 불신자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증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5:5-6)

장로들과 사역자들이 원네스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역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벧전5:7)

나의 주인을 안다면 모든 염려를 다 주인께 맡기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인이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3.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맡기면 끝이나? 아닙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인께 나를 의탁하지 않으면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나를 삼킵니다. 먹이를 찾으며 배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고 깨라는 것은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벧전 5:9)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 존재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으면 이 존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언제든지 염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갱신할 수 있는 갑옷으로 전신을 감싸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지 않는 형제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벧전5:10-11)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찾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게 안되고는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겼다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오직 그분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벧전5:12)

어떤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다른 데 서면 안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벧전5:13)

오늘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과 전도여행을 갔다가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벧전5:14)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환경, 상황, 상태에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3집중으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시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론〉

▶장로, 사역자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삶의 영적 상태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망대 안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파수꾼은 부르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 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 파수꾼에게 주인이 영광의 관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